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희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 보성군, 다양한 차문화체험 '인기'

보성군은 차 관련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차문화의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차문화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차박물관은 차에 대해 보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지난해만 관광객 14만이 넘게 방문했다.

특히, '한국차박물관'과 '차 만들어보는 곳' 체험장의 다양한 차문화 프로그램은 인기가 좋아 관광객 5천여명이 다녀갔으며, 한국차박물관 내 한국차생활실은 보성차의 맛과 향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차생활 공간으로 디례교육 및 차시를 프로그램에 관광객 3,600여명이 체험했다.

디례교육은 차를 맛있게 우려보고 예절을 배우는 체험으로 총 27회에 걸쳐 1,100여명이 참여했으며, 차 시음은 2,500여명이 체험했다.

평일은 단체 20인 이상 사전예약 제로 진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언제나 열려있다.

## 구례군,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품목 중점 점검

구례군은 설을 앞두고 23일부터 2월 14일까지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기간을 정하고, 지난 23일 축협하나로마트~구례5일시장구간 농·수·축산물 판매장 및 음식점과 대형마트를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투명성과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 명예감시원 등 12명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단속 대상은 설 제수용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괴일류의 육류, 달걀류 등과 수입이 많은 쇠고기, 꽈지고기,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생선, 멸치, 굴비, 갈치, 전복 등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638개, 수산물 및 가공품 260개 품목 등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국산을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의 혼용판매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국내 유통되는 모든 농·수·축산물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미표시 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다례교육, 차음식·차제품·블렌딩티 만들기 등 '한국차박물관' '차 만들어보는 곳' 5천여명 체험



'차 만들어보는 곳'은 지난해 5월부터 군에서 직영하며 차박물관 및 대한디원 등을 연계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한 차음식·차제품·블렌딩티 만들기 프

로그램은 관광객들에게 호응이 좋아 지난해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으로는 총 36회, 1,300여명이 참여했다.

녹차·미역차, 흑차·스콘 등 차음식 만들기는 초등학생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고, 차제품 프로그램인 녹차 천연화장품 만들기는 중·고등학생이 가장 선호했다.

또한 녹차·전자 만들기를 비롯해 블렌딩티 만들기는 10여 가지 재료의 맛과 향을 체험하며 나만의 차를 만들어보거나 나의 차를 우려 맛보는 수업으로 청소년들이 즐거운 체험을 통해 보성차를 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차는 식품, 자연과학, 인문학, 미술, 공예 등 폭넓게 연계하여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차문화 체험을 통해 즐거움이 함께하는 시간을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 고흥군, 드론 실증단지 구축 업무협약으로 주도권 확보

고흥군이 '농업용 드론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밀그림을 완성하고 농업용 드론 활성화 산업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고흥군수 박병종은 24일 공약 시행인 '무인기사업 생태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전남테크노파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주)아세아텍과 '농업용 드론 실증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스마트영농 실

현을 위한 공동추진과 투자유치를

위해 체결된 것으로,

농업용 드론 실증단지 구축 및 투자유치를 위한 협약(안)에는 한

한 투자 및 정밀농업 서비스 사업화를 추진하며, 전남테크노파크는 드론 실증단지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고흥군에서는 드론 실증단지 구축사업을 유치하고 실증 수요처를 신정하는 등 시범사업이 초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함평군,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접수지원에 적극 나서



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지난 해 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9개 읍면사무소에 접수창구를 설치,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플래카드, 배너, 홍보 리플렛 등을 제작하여 주요 시가지와 읍면사무소 등에 게시하고 각종 간담회 및 교육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군은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이·미용업 등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사업체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군 홈페이지, SNS, 전광판, 읍면 자치회보, 읍면 자치

회 사전교육, 홍보우편물 발송, 간담회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알리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누락되는 사업주가 없도록 하고 사업의 조기 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요건은 30인 미만 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0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함평=김광춘 기자

## 신안군, 임자도 관광자원화 본격 추진

해 새우젓 홍보, 체험장 등으로 활용한다.

신안군은 23일 군청에서 임자도 관광자원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 보고회를 갖고 60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안을 검토하였다.

임자도는 12km에 달하는 백사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광해수욕장과 툴립축제 개최지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계절별로 나오는 오징어, 복어, 민어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자랑한다.

군은 임자대교 개통에 맞춰 '힐링 휴양의 아일랜드, 모래의 섬' 임자도라는 비전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우선 체계적인 관광 안내를 위해 관광안내소 및 관광 상품 판매 기능을 하는 관광 홍보관을 설치하고 관광안내시스템도 일제 정비한다.

전국 젓자우의 70%를 생산하는 전장포 지역은 새우젓 발효를 위해 만들어진 토굴을 리모델링

해 새우젓 홍보, 체험장 등으로 활용한다.

1990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대광해수욕장은 청소년 수련관과 연계한 신립레포츠 시설, 해송숲 탐방로 정비, 틀립공원 아간경관 사업을 실시한다.

전남도에서 선정한 투자선도 지구인 어머리 일대는 해수욕장 화장실 주차장, 사위장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용난울 탐방로도 조성한다.

또한, 농림부 권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리 권역은 짚라인, 아와 공연장 등을 설치하여 기존 갯벌 카약 체험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개통에 맞춰 지속 예산을 확보하여 증도와 함께 임자도를 북부권의 대표 관광지로 만들겠다"며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도 집중 투자하여 가족단위 관광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 장성 어르신들 '스마트폰 완전 정복'

### 상반기 주민정보화 교육 운영…고령세대 눈높이 맞춤 교육

장성군이 고령세대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 교육을 운영해 어르신들을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장성군은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주민 180명을 대상으로 6차수(치수당 5일)에 걸쳐 '2018 상반기 주민 정보화 교육'을 운영 중이다.

교육은 스마트폰 활용법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완전 정복하기'와 SNS 심화 과정을 다른 카카오스토리로 만드는 이야기 세상' 2개 과정이 3차수씩 진행된다.

'스마트폰 완전 정복하기'은 15일부터 3주간 스마트폰 기능을 배우는 기초교육부터 생활앱 이용하기 등 다양한 활용법을 알려준다.

26일부터는 카카오스토리로 만드는

이야기 세상'을 주제로 사진과 동영상 앱을 이용해 카카오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기초부터 알려준다.

이번 주민 정보화 교육은 일상 생활의 활용도가 높고 기초부터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돼 모집 당시부터 예정 인원인 180명을 웃도는 208명이 몰려 예년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교육생은 60~70대가 대부분으로 스마트폰 기능이 숙지되지 않은 어르신들이 주를 이뤘다.

이에 장성군은 강좌별로 4~6명 까지 추가 수용해 신청인 모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7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상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부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리보호·지원

- 근로조건 명약사기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전경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민사권리방안 안내